

5개 핵심 문장에 응축한 올해의 한국

돌아본 2007

'20대 백수'는 전 세계적 현상... 그래도 낙천적이고 발랄한 세대

"월급은 88만원, 그래도 기죽지 않는다"

돈 한 푼 없어도 문화생활 포기하지 않아  
불황 따른 일시적 현상 아닌 장기적 문제

"한국의 20대는 상위 5%만 대기업, 행정부 같은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는 이미 800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인구에 합류해 평생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2007년 8월 경제학자 우석훈(39)씨와 기자 출신 저술가 박권일(31)씨가 펴낸 책 '88만원 세대' (레디앙)의 내용이다. 88만원은 비정규직 평균 임금(119만원)에 20대 급여 비율(전체 급여 평균의 74%)을 곱한 숫자다. 이 책은 발간 석 달 만에 2만2500부 넘게 팔렸다. 자문단은 세 가지 질문에 이 책과 이 책이 묘파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첫째, 부모 세대보다 학력도 높고 외국어도 잘하는 20대가 대학 졸업 후 취업난에 좌절하는 현상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25~34세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매년 줄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달에 1000유로(135만원) 안팎을 버는 청년 근로자 다분 소실 '1000유로 세대'(Generazione 1000 Euro-에타)가 불타나게 팔렸

다. 영국에서는 '저비용 세대'(Generation Low Cost)가 나타났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할인행사, 저가 항공권 등 산 것만 눈에 불을 켜고 찾다니는 20대를 뜻한다. 일본에서는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Freeter·프리+아르바이트)족이 사회 문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는 발랄하다. 우울에 젖는 대신 농담으로 시름을 날린다. 호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개성과 취향을 양보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키길 하면서 동시에 낙천적이고,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이다. "한국의 20대는 핵가족화 이후에 태어나 사교육 열풍 속에 자랐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인생을 결정할 경험, 생계가 절박했던 기억이 없다. '내가 벌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다'고

고개를 막기 위해 '되도록 늦게 은퇴하라'고 권장한다. 안 그래도 신(新) 자유주의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는 판교에 중·장년층 은퇴까지 늦어지니 청년 취업난은 점점 심해진다. '1000유로 세대'를 쓴 안토니오 인코르바이아(Antonio Incorvaia·33)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저임금과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좌절한 한 해였다.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래도 20대는 못먹고 명랑했다. '백수 기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가한 취업 준비생들이 극기 훈련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들 악문 앞선 세대와 달리, 이들은 '결혼만 안 하면 부모에게 얹혀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에게 기대지만 간섭은 질색한다. (정신과 의사 하지현씨) 셋째, '88만원 세대'는 불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통화와 맞물린 장기적인 문제다. 가령 이탈리아는 4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이다. 정치인들은 중년·노인 표를 얻기 위해 연금 수령액을 올리려 든다. 정부는 연금

도 그는 한 달에 1100유로를 버는 비정규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 정치권, 중·장년층이 냉담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돈규 기자 coeur@chosun.com

회가 요구하는 교양과 상식을 듬뿍 넣어 잘 버무린다. 역사를 바라보는 대중의 관심이 권력자에서 민초로, 중심에서 변방으로 이동한 것이다. 요즘대 역사는 이념을 벗고 국민 다수가 즐기는 '오락'이 됐다. 그 연 장선상에 드라마 '태왕사신기' 같은 판타지물이 있다. 게임을 즐기며 자란 20대가 특히 여기에 열광한다. 이들에겐 '역사물이 사실(史實)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혹은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같은 질문은 의미가 없다. 역사물 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우선 대대의 이야기를 담아낼 지배적인 해석 틀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가들이 역사에서 소재를 찾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문에 정통한 사람만 사료(史料)를 읽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조선왕조실록 같은 주요 사서가 한글로 번역돼 인터넷에 공개됐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도 한 몫 한다.



인코르바이아

'5개 핵심문장' 어떻게 골랐나

젊은 시선, 다양한 전공, 깊이 있는 교양과 민활(敏活)한 재치.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30~40대 전문가 여섯 명이 2007년을 관통한 흐름을 다섯 개의 명징한 문장에 담아냈다. 김영하(39·소설가), 이종걸(44·GQ 매거진 편집장), 임근준(36·미술평론가), 조영희(38·에코의 서재 대표), 하지현(40·건국대의대 정신과 교수), 황인성(44·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씨는 지난 10월 서울 삼성동에 모여 밤

늦도록 갑론을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두 달간 수시로 소통하며 기획의 가닥을 잡아나갔다. 이들은 크게 타진한 단번에 스러지는 일회성 사건 대신 오래도록 우리 모두의 인생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거대한 흐름을 포착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본지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섯 개의 핵심 문장에 담긴 조류를 가장 정밀하고 해박하게 설명해 줄 국내의 전문가를 수소문해 인터뷰했다. 김수혜 기자

"부동산 멈칫, 주식·펀드 날개를 퍼다"

한국인 재테크 패턴 확 바뀐 첫 해... 세계경제가 안방에 침투

"2007년은 부동산에서 주식과 펀드로 한국인의 재테크 패턴이 확 바뀐 첫 해"라고 자문단은 입을 모았다. 정부가 강력한 중과세(重課稅) 정책을 펼치고,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액수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규제에 투기 지역의 6억 이 하 아파트로 확대했다. 집값이 추축하자 시중 유동 자금

이 주식 시장에 몰렸다.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돌파했다. 지난 88년 1000선을 돌파한 뒤 20년 만이다. 동시에 주식형 펀드 수탁고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 46조원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액수다. 올해는 또 세계 경제가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서 가장 깊숙이 침투한 해이기도 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

태가 한국 주가를 폭락시키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차이나 펀드' '베트남 펀드' 등에 가입하며 해외 투자에 나섰다. 경제학자 황인성(44·사진)씨는 "재테크 패턴이 개발도상국 형에서 선진국 형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돈규 기자



박돈규 기자



조영희 에코의 서재 대표

Large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flight deal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London Stock Exchange, HANA TOURIST, and various travel offers.